

敎養教育課程을 생각해 본다



韓國敎員大 總長 權 彥 赫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이 敎養課程에서 시작되고 있는 데 관해서는 더 설명할 나위가 없다. 한때는 敎養學部나 敎養課程部가 獨立되어 있어서 1學年敎育을 專擔한 일도 있었다. 물론 必要性이 있어서 이들이 設置되었는데 다분히 日本을 모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이들은 廢止되었지만 敎養課程敎育은 必須的으로 실시되고 있다. 大學敎育에 있어서 敎養課程은 至大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여러 難關을 뚫고 大學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배하는 것이 敎養課程이다. 新入生들은 나름대로 대단한 抱負를 가지고 있다. 學問하는 場이요 眞理探究의 場이라고 일컬어지는 大學에 들어온 것이니 당연히 抱負가 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問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抱負를 가지고 들어온 新入生에게 명실공히 大學이 대학답다는 印象을 심어 주는 일은 大學人 누구나가 안고 있는 課題이다. 그런데 이러한 印象을 심어 주는 첫 課題가 敎養課程敎育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敎養課程이 어느 과정보다도 큰 比重을 차지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敎養課程이 갖고 있는 意義와 比重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敎育을 실시하는 일이 말과 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經驗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 高度로 開發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學生들에게 有益하고 재미 있는 課程이라고 인식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敎養課程이 여러 分野로부터 成立되어 있는 것은 周知되어 있는 일이다. 初·中等敎育을 마친 學生들이니 만큼 新入生이라고 할지라도 大學生이라든 어느 水準까지는 判斷力과 批判力은 가지고

있다. 지난 8月 西獨의 몇 大學을 訪問한 일이 있었다. 敎養課程에 關해서 물었더니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對答이었다. 이미 大學에 進학한 학생이면 敎養人으로서의 기본 要件을 지니고 있다는 對答이다. 西獨의 學制가 우리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4·3·3·3·4 制로 되어 있고 學生들의 進路가 國民學校 4年課程을 지나면 결정된다. 大學에 進學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학생만이 大學에 進학하는 것이니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敎養課程이 필요없다는 理論도 導出될 만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事情이 다르다. 필요하기 때문에 敎養課程敎育이 실시되는 것이다. 이왕에 실시되는 것이니 좋은 評價를 받을 수 있는 敎育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合理的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開發이 前提가 된다. 많은 大學에서 이를 위하여 계속적인 努力이 傾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社會도, 國內外情勢도 時時刻刻으로 變한다. 모든 敎育이 다 그렇지만 敎養課程의 경우에는 이 事情이 특히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만큼 ‘프로그램’ 開發 문제는 어렵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로는 大學에 대한 憧憬을 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大學敎授이고, 그 중에서도 元老敎授의 役割이 크다는 상식적인 理論을 들고 싶다. 각 분야의 元老敎授가 敎養課程을 담당할 경우 大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新入生에게 심어 주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識者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젊은 敎授들이 이 분야의 敎育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물론 成立되지 않는다. 分野別로 大學別로 사정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筆者의 愚見으로는 가능한 한 元老敎授가 敎養課程을 담당하고 젊은 敎授가 專攻科目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과거에도 이러한 愚見을 간간히 提示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體驗했다. 우리들의 慣習으로는 元老敎授가 高學年學生을 맡고 젊은 敎授가 低學年敎育을 담당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愚見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그래도 점진적인 變化가 있었던 것은 多幸한 일이다.

세째로 敎養科目 중에는 上級生에게 더욱 필요하고 또 올바르게 理解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대부분의 科目이 新入生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敎養科目을 新入生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는 halb로 안다. 이미 많은 大學에서 실시되고 있는 半이지만 新入生에게도 一部 專攻科目이 敎授될 必要가 있으며 上級生에게도 必要한 敎養科目을 受講할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는 것이 좋다.

이상의 愚見은 새로운 것도 기발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알고 있는 平凡한 見解인데 敎養課程敎育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적어 본 것이다. *